

여성불자들 경제적 학대 호소

‘행복한 가정상담소’ 2005년 상담결과

피해유형, 경제-정서-신체적 학대順 후속조치 미흡...실질적 지원 따라야

파악한 경제 사정 속에서도 일한 자녀교육과 가정살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 불자들. 하지만 지난 한 해 여성불자들은 가정 내 경제적·정서적 학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 부설 행복한가정상담소가 발표한 ‘2005년 상담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 한 해 615건의 상담을 했으며 이 중 72%에 달하는 444명이 가정폭력피해를 상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중 타종교인이라고 밝힌 150명을 제외한 465명은 불교신자이거나 친불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연령은 40~50대가 36%(227명)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0대(90명)·20대(29명)가 그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로는 배우자가 369명(83%)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가해유형은 경제적 학대(돈을 벌거나 관리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함)나 정서적 학대(말이나 행동으로 정서·심리적 상해를 입히거나 집기들던지는 등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각각 141명(31%)과 114명(25%)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성적 학대는 각각 90여명(20%)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 통계에서는 신체적 폭력(31%)·정서적 학대(29%)·경제적 학대(24%) 순이었는데 반해 최근 들어 경제적·정서적 학대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담에 뒤따르는 후속조치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실질적인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복한가정상담소의 상담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사나 법적 지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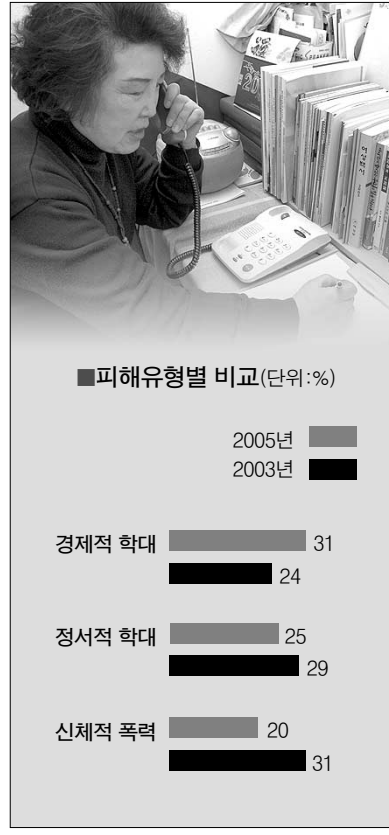
료지원·시설입소 연계 등은 40여건에 불과했다.

이는 어느 종단이나 복지관 시설 등과의 연계 없이 상담만 진행하고 있는 상담소 자체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점도 있지만, 실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묘주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직업교육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는 단기 입소시설 등이 실질하게 필요하지만, 본 상담소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불교계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상담소에서는 상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 외에 무료 법률상담을 추천하거나 소송 지원, 시설입소 연계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영자 교수(방송통신대)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가정상담소의 경우 사회운동기관인 YMCA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입소시설 등과 연계해주고 있다”며 “여성불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불교계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월정사 노인요양시설 건립

연건평 369평 규모...3월 착공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연건평 369평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월정사측은 자부담 4억9000만원과 국·도·군비 11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16억8000만원을 투입, 월정사 인근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올 3월 착공해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의료물리 치료

실, 의무실, 목욕실, 자원봉사실, 휴게실 등이 들어서며 실비로 운영된다. 50명을 정원으로 올해 말부터 노인들의 입소를 받을 계획이다.

월정사측은 “운영은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해 담당하고 입소자들은 최소한의 경비만 내면 된다”며 “노인요양시설이 오대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년 고찰 인근에 있어 심신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지울 스님 원광대 한방병원서 퇴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지울 스님이 2월 2일 오후 7시께 퇴원했다.

병원을 나선 지울 스님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제공한 휠체어에 의지해 광주 모 사찰로 거처를 옮겼다.

병원측은 “스님의 건강은 가벼운 음식과 재활운동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퇴원을 결정했다.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지울 스님이 2월 2일 오후 7시께 퇴원했다.

병원을 나선 지울 스님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제공한 휠체어에 의지해 광주 모 사찰로 거처를 옮겼다.

병원측은 “스님의 건강은 가벼운 음식과 재활운동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퇴원을 결정했다.

고 있기 때문.

한편 광주지역 종교·시민들로 구성된 ‘지울 스님과 함께하는 수요기도모임’은 2월 1일 광주 선덕사에서 모임을 갖고 “지울 스님의 카페 초록공명(http://cafe.naver.com/chorokgm)을 통해 ‘지울 스님의 생명 살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광주=이준엽 기자

조계사에서 신년하례법회 병원불자연합

이원철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병원직원불자들의 노력으로 아픈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진하자”며 “올해는 그 동안 계속해왔던 해외, 농촌봉사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누는’ 병불연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신년 찬불가 합창, 108배 참회, 전일 회장단 격려사 등으로 이어졌다.

김강진 기자

원불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원철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병원직원불자들의 노력으로 아픈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진하자”며 “올해는 그 동안 계속해왔던 해외, 농촌봉사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누는’ 병불연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신년 찬불가 합창, 108배 참회, 전일 회장단 격려사 등으로 이어졌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국제포교사 자격증 갱신 신청접수

조계종 포교원은 국제포교사증 교부 및 갱신 후 2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을 첨부해 국제포교사회(02-722-2206)나 포교원(02-2011-1895)으로 접수하면 된다. 통보는 올 3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g)를 통해 공고된다.

남동우 기자

스리랑카 복지타운 3월 8일 착공

조계종 스리랑카복지타운(이하 조계종복지타운) 착공식이 3월 8일 열린다.

조계종복지타운 건립주체인 한·스문화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2월 3일 2차 이사회를 열고 건립규모와 착공일자 등을 확정했다.

조계종복지타운은 약 9억원을 들여 고아원, 유치원, 종합관리사무소 등 건물 10동 600평 규모로 건립된다.

수용인원은 당초계획보다 40명이 줄어든 60명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상임위원장,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을 집행위원으로 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관 스님은 “이미 모금된 성금을 모두 사용한 뒤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영 기자

‘직지의 고장’ 청주서 직지강좌

청주불교문화대학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 <직지심경>의 핵심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강의를 열릴 예정이다. 법주사 승가대학장 절은 스님을 강사로 올 4월부터 청주불교문화대학에서 개최하는 ‘직지강좌(매주 월 저녁 7시)’가 그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지’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점>의 준말로 고려 말 고승 백운화상이 간

행한 선어록이다. <직지심경>의 내용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깨달음 경지와 선문답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직지심경>의 가르침과 내용을 불교계에서 직접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직지심경>의 상·하권이 교재로 사용되며 원문을 대조하면서 그 행간의 내용을 파악해 본다. 이밖에 청주불교문화원에서는 기초교리, 경전연구, 한지공예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043)256-6254 해철 대전 충북지사장

황우석 살리기 운동본부 결성

본부장에 고준환 교수...종교계등 각계 인사 참여

황우석 박사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각계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계를 비롯해 각계가 참여하는 황우석 교수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된다.

국민운동본부는 1월 26일 인터넷 카페 겸 홈페이지(www.livehwang.com)를 개설한데 이어 1월 28일 고준환 경기대 교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공동대표단, 고문단, 자문위원단 등 임원단을 발표했다.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단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조계종 종무원장 부주지 계성 스님 등 불교계 중진 인사들 비롯해 전병관 경기도 교육(가톨릭), 정정박 영주교회 목사, 이재룡 대중교 총전교 봉선 등 종교계 인사와 강경구 의사, 김관태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배금 자변호사, 이희수 소설가, 박종수 국민운동본부 발령인 등 각계 인사로 구

성했다.

또 고문단은 은혜사 주지 법타 스님, 한라산 영실 존자암 중창주 범정 스님, 김선적 통일광복민족회의 상임의장으로 참여했으며, 김홍표 동국대 교수와 윤순년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호순 서울시의회 의원, 김범수 인하대 교수, 용해사 주지 무진 스님, 유인현 국학운동시 민연학 사무총장, 공인창 천덕연등등 임원단에 위촉됐다.

임원단을 포함한 300여명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국민운동본부는 미리 발표한 창립 취지문을 통해 “민족과 인류의 희망인 황우석 교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민족통일 복지기구를 이루고, 우리 문화가 세계 중심문화가 되는 하나의 평화세계를 향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영 기자

영동 영국사 대웅전 새 단장

해체복원 마쳐 6일 낙성법회

충북 영동 영국사(주지 청원) 대웅전(충북유형문화재 제61호)이 새롭게 단장했다.

2005년 4월 산불에 의한 소실 위기를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국사 대웅전은 2004년 11월부터 해체복원 공사에 들어가 2월 6일 낙성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은 영국사 회주 월서 스님과 지역 스님 및 기관장, 불자 등이 참석했다.

정면3칸 측면3칸의 대웅전 해체복원 공사는 부식된 기둥과 기와 등을 교체하고 나무지 자재는 재조립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낙성식에서 주지 청원 스님은 “대웅전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 불자들이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진할 수 있게 됐다”며 “불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올 해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국사 주변 문화재인 망담봉 삼층석탑과 석종형 부도, 원구형 부도 등에 대해서도 해체 보수할 계획이다. 사찰 주변에 대한 발굴 작업과 유구 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해철 대전 충북지사장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신하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제, 천도제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제·천도제·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2학기 작법·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바라춤-요잡바라, 관음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박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부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인천수륙제보유자

■ 개강일시 : 2006년 3월 7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 2회)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대학은 초중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의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제 보존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혜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한글인터넷 : www.수륙제 www.범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